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8호> 2017년 1월 발행

「What`s Up, OITA!」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신년 인사】 오이타현 기획진흥부장 히로세 유희로 (廣瀬 祐宏)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 4월 구마모토 지진으로 관광지가 피해를 입으며, 한 때 관광객이 감소하기도 했습니다만, 관광 캠페인과 규슈 부흥 할인 쿠폰 등의 효과로 9월부터 V자를 그리며 회복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재해 피해 복구는 착실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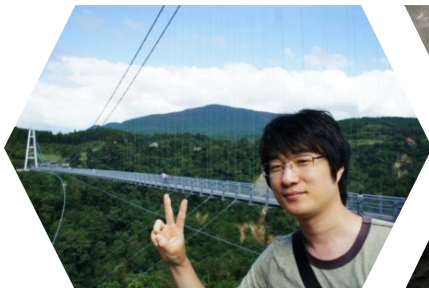
이어 오이타현 홍보 동영상 ‘싱크로 인 온천’과 제 2탄 ‘가라, 싱크로부!’의 효과로 오이타현의 매력도 랭킹이 전국 32위에서 15위로 꺾충 뛰어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랭크업을 보였습니다. 또한 오이타 트리니타의 J3리그 우승, 1년만의 J2리그 복귀를 결정지었으며, 히타 기온 마쓰리의 히키야마(가마) 행사를 포함한 ‘야마(山)·호코(鉾)·야타이(屋台) 행사’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되는 등 기분 좋은 뉴스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국민 문화제와 전국 장애인 예술·문화제 그리고 2년 후에는 럭비 월드컵이 오이타에서 개최됩니다. 해외의 많은 분들이 오이타현을 방문해주실 수 있도록 오이타현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세계에 발신해나가고자 합니다. 고향 오이타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건승과 활약을 기원함과 동시에 올 한 해도 멋진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신년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녕! 오이타 라이프 ~ 소소한 오이타 생활기 ~



저는 한국 출신의 조용준이라고 합니다.

일본생활 8년차이며 오이타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오이타은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과거 제가 관광객으로 오이타에 방문했을 적에 경험한 벳부온천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처음 벳부에 도착하고서 놀랐던 것은 유황의 냄새와 마을 곳곳에서 온천수증기가 올라오는 풍경이었습니다. 일상속에 온천이 있는 이러한 광경이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도 온천지로 유명한 곳이 있지만 이처럼 풍부한 원천이 없어 본격적인 온천을 경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벳부에서는 온천입욕뿐만 아니라 온천을 이용한 먹을 것이나 다양한 관광코스가 정비되어있어 신선하고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이타에 살면서 오이타를 방문하는 친구에게 관광지를 소개하거나 방문한 장소의 사진이나 동영상만 만들어 자신이 경험한 오이타를 세계에 알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이타의 정보발신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8호> 2017년 1월 발행

오이타 100% 즐기기! 분고오노시 아사지 관광택시



<유자쿠 공원>

오이타현의 단풍 명소로서 유명한 유자쿠공원은 약 500그루의 단풍나무들이 심어져있어 울긋불긋 물든 단풍 시즌에는 많은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특히 신지이케 연못의 잔잔한 수면 위로 비치는 단풍나무의 대조적인 모습은 이 곳만의 매력입니다. 단풍시즌에는 라이트업되어 저녁에는 환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단풍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미치노에키 아사지>

미치노에키는 한국의 휴게소와 같은 개념으로 미치노에키 아사지에서는 분고오노시의 지역 특산물 및 특산품이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분고오노시의 유형문화재로 등록된 돌다리가 있으며, 레스토랑에서는 지역 특산물로 만든 요리를 맛볼 수 있고, 아사지 명물 고로케 등 먹거리도 풍부한 곳입니다.



<지역소주 양조장>

보리소주 무례즈루의 양조장으로 시음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무례즈루와 함께 카보스도 같이 제공되어, 카보스즙을 직접 짜서 넣어 마시면 상큼한 맛이 더해져,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양조장을 안내받아 발효되는 효모의 모습도 관찰하며, 사케의 제조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사쿠라 후미오 기념관>

분고오노시 출신의 유명한 조각가인 아사쿠라 후미오의 기념관에서는 제13회 아시아조각전이 개최되고 있었으며,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입상작의 인기 투표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공원 내에는 그 동안 조각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자연에 둘러싸인 한적한 곳에서 산책 겸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8호> 2017년 1월 발행

오이타 100% 즐기기! 분고오노시 아사지 관광택시



단풍 시즌인 11월, 많은 관광객들이 분고오노시에도 찾아오시길 바라며 분고오노시 아사지정의 관광지를 도는 관광 택시가 주말과 공휴일 한정으로 운행합니다. 아사지역에서부터 유자쿠공원, 후코지절, 양조장, 미치노에키 아사지를 기본 코스로 교통편이 불편한 곳을 택시로 편하게 관광할 수 있으며, 택시 기사님의 간단한 설명까지 더해져 더욱 알차고 유익한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11월 주말 및 공휴일 운행 (사전예약제) 총 소요시간 4시간
이용료 소형(최대 4명) 4,000엔, 점보(최대 9명) 9,000엔



오이타 100% 즐기기! 오이타시내 일루미네이션



오이타역 앞 광장 전체와 메인거리에는 멜로디와 함께 수많은 빛들이 반짝이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오이타 빛의 판타지 ~별이 빛나는 밤하늘의 심포니~’를 테마로 올해에도 개최된 오이타시내를 빛내는 일루미네이션은 새로 생긴 ‘빛의 강’과 업그레이드된 ‘빛의 트리’ 등 작년보다 한 층 더 화려해진 일루미네이션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삭막해질 수 있는 겨울 풍경을 포근한 불빛들로 감싸주니 추운 겨울이 로맨틱하게 느껴집니다. 아름다운 일루미네이션은 작년보다 더 길어진 2월 중순까지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점등 기간 : 11월 11일 ~ 2월 14일
점등 시간 : 17:00 ~ 24:00



크리스마스 시즌에 유럽 곳곳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오이타에서도 즐길 수 있는데요. 바로 오이타역 앞 후나이 중앙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인 오이타’입니다. 따뜻한 스프가 맛있는 냄새를 풍기며 사람들을 유혹하고, 음식은 물론 와인과 크리스마스 장신구 및 잡화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메인 스테이지에서는 매일 밤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가게들도 유럽의 분위기를 연상케하며 마치 유럽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기간 : 12월 5일 ~ 12월 25일
시간 : 17:00 ~ 21:00 (금,토 22시까지)



어느 덧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6년은 What`s up, OITA!의 다국어판이 제작되면서 취재를 통해 그 동안 가보지 못했던 오이타의 여러 곳을 다녀올 수 있었는데요. 2017년에도 다양한 오이타의 모습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제교류원 김진아

